

Microsoft : Windows 95, NT드라이버 통합

Microsoft사는 Windows 95와 Windows NT 운용시스템의 하드웨어 드라이버 인터페이스를 통일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Microsoft사는 “Worldwide Windows Driver Model(WWDM)”을 4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San Jose에서 열리는 Windows Hardware Engineering Conference(WinHEC)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Microsoft사의 Windows 95 제품 매니저 Rob Bennet씨는 올 해 말까지는 새 인터페이스가 기존의 Windows 95 및 Windows NT 인터페이스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WWDM은 I20 I/O 표준을 정의하기 위한 첫 단계 조치라고 할 수 있다. I20 I/O는 운용시스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종류에 구애 받지 않는 드라이버의 개발을 가능하게 해주는 인터페이스 표준으로, Microsoft, Net Frame Systems, Hewlett-Packard, Compaq Computer, 3Com, Symbios Logic 등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영국 ODI, 인터넷용 이미지, 음성 동시 전송 기술 개발

On Demand Information(ODI)은 World Wide Web(WWW)을 통해

음성과 이미지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ODI의 Chris Solbe 대변인에 따르면, 6월부터 245파운드의 가격에 시판되는 “ODX” 시스템은 ASVD(Analog Simultaneous Voice & Data) 기능을 갖춘 V.34 모뎀과 ODX 메뉴가 추가된 “Netscape Navigator”로 구성돼 있다.

이 시스템은 V.34 모뎀 채널 중 28,800bps(bits per second) 채널은 데이터 전송에 사용하고, 나머지 4,800bps 채널은 음성 전송에 사용하도록 설계돼 있다.

ODI는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모뎀을 Pace Consumer Electronics를 통해 개발하고 있으며, Navigator 소프트웨어에 ODX기능 메뉴를 추가시킨 버전을 개발하기 위해 Netscape Communication 사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ODI에 관한 추가 정보는 <http://www.on-demand.co.uk>에서 입수할 수 있다.

한편 Microsoft는 작년 8월 출범 시킨 온라인 서비스 “Microsoft Network(MSN)”가입자 수가 100만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INTEL, “390 DOCK” 칩세트 공급

Intel은 Windows 95용 노트북 PC 개발업체들을 위한 “380 Dock” 칩

세트를 공식 발표한다.

“Docking Station”을 지원하는 노트북PC에 사용되는 이 칩세트는 노트북 PC를 켜놓은 상태에서 Docking Station에 연결/분리해도 데이터를 상실하지 않게 해주는 “Hot Docking” 기능을 갖추고 있다.

Intel은 이 칩세트 시제품을 현재 공급하고 있으며, 대량 공급 가격은 31달러로 책정했다.

한편 Compaq Computer를 비롯한 노트북 PC업체들은 380 Dock 칩세트를 채용한 차세대 노트북 PC를 2/4분기부터 시판할 예정이다.

Seagate, “ULTRA-SCSI” 디스크 드라이브 시판

Seagate는 “Ultra-SCSI” 인터페이스 표준을 지원하는 디스크 드라이브 신제품 “Hawk 2XL” 시리즈를 시판하기 시작했다.

또한 Seagate는 Ultra-SCSI 표준과 Fibre Channel-Arbitrated Loop (FC-AL) 표준에 고성능 제품군에 채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eagate에 따르면, Ultra-SCSI 인터페이스는 초당 40-Megabytes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며, FC-AL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초당 200-Megabytes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Seagate는 이 회사에 합병된

Conner Peripherals Inc. 가 채택했던 Serial Storage Architecture(SSA)방식 디스크 드라이브의 개발은 중단하기로 했다고 지난 2월 밝힌 바 있다.

Seagate에 관한 정보는 <http://WWW.Seagate.com>에서 입수 할 수 있다.

Sanyo, 고속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개발

Sanyo는 기존 제품들보다 이미지 처리 속도가 4배 더 빠른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Sanyo에 따르면, 현재 시판되고 있는 비디오 카메라는 1/60초에 한번씩 이미지를 녹화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개발된 카메라는 1/240초 마다 이미지를 녹화할 수 있다.

Sanyo는 이 카메라의 상품화 일정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Matsushita, 벽걸이형 TV판매 시작

일본의 Matsushita Electric Industrial 사는 PDP(Plasma Display Panel)를 사용하는 26인치 규격의 벽걸이형 TV를 공식 발표 했다. Matsushita에 따르면, 이 제품은 별도의 VCR/Tuner에 연결해야 하며 시판 가격은 1만 달러로 책정됐다.

Matsushita는 이 제품을 월 1백 대씩만 우선 생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NEC Corp.는 매월 1천대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PDP 생산 라인을 일본 Kawasaki에 구축했는데, 이를 통해 NEC 는 33인치 규격의 컴퓨터용 모니터 시제품을 올 여름부터 생산할 계획이다.

NEC의 PDP모니터 또한 대당 1만달러 수준의 가격에 시판될 예정이다. 일본 Kyushu에 PDP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 Fujitsu Ltd.는 42인치 크기의 제품을 생산해 TV 업계에 주로 공급할 예정인데, 첫 수개월간의 생산분은 이미 매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LSI LOGIC, 프로그래머블 MPEG-2 인코더 칩세트 개발

캘리포니아주 Milpitas에 있는 반도체 개발업체 LSI Logic 사는 사용자가 프로그램할 수 있는 MPEG-2 인코더 칩세트 기술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LSI Logic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Video Instruction Set Computing(VISC)"칩세트는 Video Interface Processor(VIP), Advanced Motion Estimation Processor(AMEP), Advanced Video Signal Processor(AVSP)등 세개의 칩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 세 칩에는 사용자가

프로그램할 수 있는 MiniRISC MIPS R4000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내장돼 있다.

LSI Logic은 VISC 시제품을 현재 공급하고 있으며, 2/4분기 부터는 대량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LSI Logic에 관한 추가 정보는 <http://www.lsilogic.com>에서 입수할 수 있다.

미국 인터넷 장비 시장, 2000년에 3백억달러 돌파 예상

미국의 인터넷 관련 장비 시장이 연평균 35.1% 씩 성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Mountain View에 있는 시장조사 업체 Frost & Sullivan의 최근 보고서 "Internet Equipment and Services Markets"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약 10만개의 네트워크 도메인이 인터넷에 연결돼 있으며, 호스트 사이트의 수는 500만을 초과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Frost & Sullivan은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 및 상거래에 관심을 갖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들의 요구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인터넷 접속 절차를 간편화시키고 보안성을 향상 시키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장비 및 서비스 업계가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Fujitsu, Windows 95용 펜 컴퓨터 발표

캘리포니아주 Santa Clara에 있는 Fujitsu Personal Systems 사는 Windows 95 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펜컴퓨터 "Stylistic 1000"를 개발, 기본 시스템 가격 2,895달러에 시판한다고 발표했다.

Fujitsu에 따르면, 이 컴퓨터에는 100MHz 486DX4 프로세서가 사용되며, 7.8인치 칼라 Passive Matrix 스크린 또는 7.9인치 흑백스크린이 장착된다.

Motorola, Ericsson : ADSL 솔루션 개발에 협력

Motorola Semiconductor 산하 MOS Digital-Analog I.C.Division은 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ADSL)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Ericsson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Motorola의 ADSL 트랜시버를 토대로 하는 제품을 개발, Ericsson의 "COBRA AT 8" 브랜드를 사용해 시판할 계획이다.

Motorola에 관한 정보는 World Wide Web(WWW) 사이트 <http://www.motorola.com>에서 입수할 수 있으며, Ericsson에 관한 정보는 <http://www.ericsson.com>에서 입수할 수 있다.

TOSHIBA, DVD 플레이어로 PC시장 공략

캘리포니아주 Tustin에 있는 Toshiba America 사는 DVD(Digital Video Disk) 플레이어를 통해 가전제품 시장 뿐 아니라, 기업용 PC시장까지 공략할 계획이다.

Toshiba는 CD-ROM 또한 작동시킬 수 있는 DVD플레이어를 개발, 올 4/4분기부터 CD-ROM 드라이브를 대체할 수 있다는데 제품 홍보의 촛점을 둘 방침이다.

그러나, PC에 DVD 플레이어를 연결해 비디오를 재생하려면 MPEG-2 디코더가 필요한데, 이 경우 약 300달러의 비용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DVD 플레이어를 PC 사용자들에게 보급하는데는 가격이 장애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Toshiba의 DVD 마케팅 책임자 Takayuki Ikeda씨는 제품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Toshiba는 TV에 연결해 사용하는 가정용 DVD 플레이어는 500~700달러에 시판할 계획이다.

NEC, 유럽 GSM 전화기 시장 진출

NEC는 자사의 "G8"시리즈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

cation) 전화기를 4월1일부터 유럽 시장에 시판한다고 발표했다.

NEC는 영국, 스페인 및 이태리에서 먼저 GSM전화기 사업을 시작하고, 올 상반기 안에 독일, 프랑스 및 스칸디나비아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EC가 유럽에서 판매 할 GSM 전화기를 공급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 NEC는 사업 첫해에 100만대의 GSM 전화기를 판매 할 방침이다.

YAMAHA, 4-트랙 MD 녹음기 개발

Yamaha는 Minidisc(MD)를 사용하는 4-트랙 디지털녹음기 "MD4"를 개발, 6월15일부터 9만 9,800엔 시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Yamaha에 따르면, MD4는 업계 최초로 개발된 가정용 멀티 트랙 녹음기로서, 이미 녹음되어 있는 피아노 트랙에 음성을 추가 녹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Yamaha는 첫 한해 동안에 2만대의 MD4를 판매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Shanghai에 8인치 웨이퍼 공장 건설

중국 정부는 첨단 설비를 갖춘 8인치 웨이퍼 공장을 Shanghai 지역에 건설하기로 했다.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의 Ministry of Electronics Industry와 Shanghai 시 당국은 Pudong Industrial District에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소요 비용을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이 공장은 중국내 두번째의 8-인치 웨이퍼 공장이 되는데, 지난해 Motorola는 Tianjin공장에서 메모리를 비롯한 대량생산 품목을 생산해 반도체 업계의 해외의 준도를 낮추고, 이 공장에서 개발되는 첨단 기술을 중국의 다른 공장에 이전할 방침이다.

NEC, 플래시 메모리 갖춘 RISC 프로세서 개발

일본의 NEC 사는 플래시 메모리를 갖춘 32-bit RISC 프로세서를 개발, 4월부터 시제품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NEC는 마스크 ROM을 내장한 RISC칩도 함께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EC에 따르면, 플래쉬 메모리를 갖춘 RISC칩 제품은 5천엔에, 마스크 ROM버전 시제품은 3천엔에 공급될 예정이다. NEC는 이들 두 프로세서를 올해 하반기부터 월 50만개씩 대량 생산할 계획이다.

샤프, 차세대 TFT 액정 모듈

일본 샤프사가 초광시야각·고휘도·고콘트라스트를 동시에 실현한 차세대 박막트랜지스터(TFT) 방식 액정디스플레이(LCD) 「슈퍼V액정」을 개발해 13.8인치형 XGA사양의 TFT액정모듈 시제품을 제작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경제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 시제품은 데스크톱상의 3방향 모두에서 70도 이상의 시야각 특성을 갖기 때문에 PC용 디스플레이로서 보는 각도에 따른 화질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샤프은 밝혔다.

이 시제품은 13.8인치형 XGA 사양 모듈을 컴퓨터 디스플레이로 사용할 때 소비전력은 같은 크기에 비해 5분의 1수준이다.

샤프의 이를 앞으로 차세대 PC 용 디스플레이로 실용화할 계획이다.

마쓰시타, 베트남서 컬러TV 합작생산

일본 마쓰시타전기가 베트남에서 컬러TV를 합작생산한다.

「일본경제신문」보도에 따르면

마쓰시타는 베트남의 국영기업인 베이트로닉스공단과 곧 합작사를 설립, 현재의 기술지원계약을 공동생산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번 합작생산결정은 베트남에서 경영의 주도권을 갖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마쓰시타가 이 지역에 직접 진출하는 것은 베트남전쟁으로 현지법인을 폐쇄한 이후 21년만이다.

호치민에 본사를 두는 합작사에는 마쓰시타측이 60%, 너머지는 베이트로닉스등이 출자한다.

합작사는 베이트로닉스의 공장을 활용해 14, 21인치형 컬러TV를 파나소닉브랜드로 생산하는 한편 오디오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마쓰시타는 지난해 1월 베이트로닉스와 기술지원계약을 체결, 현재 말레이시아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조립생산하고 있다. 생산 규모는 월 5천대인데 합작형태로 전환한 다음에는 월 1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베트남 컬러TV시장규모는 연간 50만대로 아직 규모가 작지만 앞으로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